



노인요양원 건립 스님들이 나섰다

노령화시대를 넘어선지 오래, 노인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다. 밥 양에 떨어진 불처럼 답답해진 노인복지문제 해결에 통도사 대종사 스님 12명이 발 벗고 나선 특별한 전시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10월 4일 부산을 출발, 10월 11일부터 15일까지는 울산에서, 통도사 개산대제 기간인 21일, 22일에는 통도사 경내에서 열린 통도사자비원 무료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기금 마련 전시회였다. 이 전시회에는 조계종 종정이었던 월하 스님을 비롯, 통도사 산내 암자에 사는 수안·성파·원명·석정·청운·동원·원산·상우·중산·관우·무주 스님 등 12분의 수행 정진이 갖은 선서화로 노인복지에 뜻을 보냈다.

스님들이 회사한 선서화는 무려 246점. 전시 공간이 좁아 그림을 모두 전시할 수 없었을 정도로 부채에 그림이나 글씨는 쓴 소품에서 맑은 선의 세계를 담은 대작까지 맑은 선의 세계를 담은 작품들이 대거 선보였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통도

사 자비원 설립을 이끌었던 월하 스님의 글씨는 스님의 수행력을 흠모하는 많은 불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또한 석정 스님의 선서화와 수안 스님의 뛰어난 색감이 돋보이는 그림에 곁들여진 선서도 전시회의 품격을 한껏 높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산내 암자에서 수행 정진하던 여러 스님들의 선기(禪氣) 어린 작품들이 일반에 첫 공개되는 귀한 자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번 전시회는 사회복지



통도사 주지 현문스님(사진 오른쪽 끝)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이 전시작품을 둘러보고 있다.

통도사 스님 12명 선서화 246점 모아 전시 창작 시연 등 호응...수익금 전액 기금으로

법인 통도사자비원의 복지사업에 대해 통도사 산중 스님들이 뜻을 모았다는 것과 더불어 스님들이 노인 복지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전시회 기간동안 직접 전시회장을 찾아 불

자들의 만남을 통해 관심을 호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 통도사자비원 원장을 지낸 수안 스님은 매일 전시회장을 찾아 한지 부채에 직접 그림을 그려주는 창작 시연의 시간을 가

려 전시회장을 찾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으며 중산 스님은 울산 지역에서 법회를 열기도 했다. 이번 전시회의 수익금 전액은 11월에 개원될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과 운영에 사용된다. 지하 1층 지상 4층 680평 규모로 최첨단의 재활 및 의료시설을 갖추고 개원될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대덕 스님들의 마음까지 보태져 부처님의 자비이념을 펼 이곳에서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으며 오갈 곳이 없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여생을 보내게 된다. 앞으로 어르신들을 편하게 모시는 위한 봉사과 지속적인 후원이 모두의 과제로 남겨졌다. (055)383-3999 글·사진=천미희 기자

나눔의 키크

한마음선원 목포지원 신도일동 - 60만6천380원

단청장 김운오 - 30만원

총 누적금액: 26,399,33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세요.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헌보가 전개중인 '우리의 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emblem을 공동 사용합니다.

태고종 행자들, 단체로 '생명나눔'

합동독도수계산림 참가자

현행 46명·골수기증 서약 25명

장기기증 서약 53명 동참

태고종 합동독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들이 자발적으로 단체 현행과 골수 기증, 장기기증 서약 등을 실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태고종 총무원 공동주관으로 10월 21일 태고종립 순천 선암사에서 열린 단체현행 및 골수 기증, 장기기증 캠페인에 태고종 행자 123명이 동참했다. 이날 행자들은 현행 46명, 골수기증 25명, 사신 및 장기기증 53명이 서약했다. 이어 열린 생명나눔 서약식에서 행자들은 "중생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는 예비 성직자들의 서원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곳에 써달라"며 45장의 현행증서를 생명나눔본부 이해숙 사무총장에게 전달했다.

태고종 교무부장 법현 스님은 "행자



태고종 합동독도수계산림에 참가한 행자들이 10월21일 순천 선암사에서 단체현행을 하고 있다.

들이 이번 합동독도수계산림교육기간을 출가의 의지를 다지고 성직자로서 평생을 사회와 종단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는 서원의 장으로 승화시켜나가기 위해 자제적으로 발의하고 요청해 이를 추진하게 됐다"며 "행

자들의 이번 결의는 출가수행자로서 사회와 종단을 이끌고 제도하는 진정 한 수행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요, 신심의 발로에서 나온 거룩한 봉사"라고 말했다.

글·사진=이준영 기자

단청문양전시회 연 김운오 씨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전달

본사 창간 10주년을 기념해 '8만4천 창작단청문양전시회'를 연 단청장 김운오씨가 10월 21일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 30만원을 나눔의 손잡기에 전달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김씨는 "첫 전시회가 원만히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관심갖고 찾아준 모든 분들께 감사사를 드린다"며 "현대불교에서 진행

중인 소년소녀가장돕기 운동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어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본사가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경인미술관 제2전시실에서 개최한 '김운오 8만4천 창작단청문양전시회'에는 연인원 2천여명이 작품을 관람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김원우 기자



단청장 김운오씨(사진 왼쪽)가 현대불교 서정민이사에게 소년소녀가장돕기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재원 기자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 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 *자동이체 신청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현대 불교 신문사 고객센터 (02) 737-8881 (02) 737-0090, 팩스 (02) 737-0697

"어린이·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니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교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기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사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 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들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집합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 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현행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현행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해 기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야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세요.